

지역 소식통

정읍시, 한우·쌍화차 단풍
미인소핑몰서 80% 할인

정읍시가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는 9월 10일까지 지역 특산물의 매력을 선보이는 단풍미인소핑몰을 비롯해 한가위 기획전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고품질 정읍 한우, 지황육고, 쌍화차, 잡곡세트, 한과, 멜론 등 200여 품목의 농특산물을 최대 80%까지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

이번 기획전은 시와 지역 생산자 단풍미인소핑몰 협의회가 협력해 추진한 결과물로, 소비자들에게 고품질의 정읍 특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또한 신규 가입 회원에게는 3000포인트를 증정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해 소비자들이 부담 없이 쇼핑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단풍미인소핑몰에 입점된 상품은 지역 생산자들이 정성을 다해 생산한 것으로 엄격한 품질과 포장 검사를 통과한 제품들만이 선정됐다.

/정읍=김대환 기자

또한 신규 가입 회원에게는 3000포인트를 증정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해 소비자들이 부담 없이 쇼핑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단풍미인소핑몰에 입점된 상품은 지역 생산자들이 정성을 다해 생산한 것으로 엄격한 품질과 포장 검사를 통과한 제품들만이 선정됐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내년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사업 수요조사

부안군은 2025년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희망자 수요조사를 오는 9월 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무·배추·수박·딸기 등 채소류 및 복숭아·블루베리 등 과수류 품목을 재배하는 단동·연동 내제해형 비닐하우스 설치용 600㎡ 이상, 4000㎡ 한도로 지원한다.

해당 지역은 군 전체 읍·면이며 신청 서류는 사업 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증으로 사업대상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군은 수요조사 후 2025년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청 농업정책과 스마트원예팀(☎ 063-580-4782)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2023년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들은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요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치유문화축제 내달 개최

9월 6~8일 고창읍성 일원... 문화도시주제전시 등 프로그램 운영

가을의 시작 9월, 고창군 랜드마크 고창읍성 일원에서 제2회 고창 치유문화축제가 열린다.

28일 고창군문화도시센터에 따르면 9월6~8일 3일간 고창읍성 일원에서 '제2회 고창 치유문화축제'를 연다. 개막식은 7일 오후 7시에 열리며 축하공연에는 안다일 노라조, 주현미 등 유명 가수들이 무대를 빛낸다.

올해는 고창만이 가지고 있는 치유문화 특성을 경험할 수 있도록 '나의

세상을 연결하는 다섯가지 감각'을 주제로 삼았다. 특히 주민이 만들어가는 주민 주도형 축제를 위해 주민 기획 오감 콘텐츠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문화도시 주제전시 △오감 체험 프로그램 △산림해양 치유 프로그램 △관음 프로그램 △오로라 전시전 △버섯싱 △시민 네트워킹 △어린이 놀이터 등이 준비되고 있다.

작년에 처음 열린 치유문화축제는,

많은 관광객과 주민들에게 문화도시 고창이라는 브랜드를 인식시키고 치유문화 중심지로서 고창의 스토리텔링을 알렸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슬로간에 맞는 오감 체험 프로그램을 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다"며 "축제를 통해 고창이 현대인들에게 치유의 목적지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엠폭스 확산 대비해 예방수칙 준수 강조

환자 감시체계 구축... 접촉자 관리 강화

정읍시는 엠폭스(원숭이두창) 유행에 대비해 환자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환자와 접촉자 관리 강화에 나섰다. 또한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예방수칙 준수를 강력히 당부했다.

엠폭스는 원숭이두창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급성 발열 및 발진성 질환으로, 감염 후 1~4일 사이에 발진 증상이 나타난다. 대부분의 경우 2~4주 내에 자연 치유되지만,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 엠폭스는 아프리카에서 시작해 아시아를 비롯한 여러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2022년 6월에 첫 확진 사례가 보고됐다.

최근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는 기존의 바이러스보다 전파력과 치명률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엠폭스 바이러스는 주로 남성 간 성관계를 통해 확산됐으나, 이번 변이 바이러스는 모든 종류의 성관계와 밀접한 신체 접촉을 통해 확산될 수 있다.

성관계 외에도 감염된 사람과의 피부 접촉이나 그들의 옷과 침대 시트 등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전염될 수 있으며, 감염자에게는 수두와 유사한 피부 발진이 나타나는 증상이 동반되기도 한다.

엠폭스 예방을 위해서는 여행 시 모르는 사람이나 다수와의 밀접 접촉(피부 접촉, 성접촉 등)을 피하고, 설치류(쥐, 다람쥐)나 영장류(원숭이, 유인원) 등 작은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삼가야 한다. 또한 오염된 손으로 눈, 코, 입 등의 점막 부위를 만지지 말고, 엠폭스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의 피부 병변(발진, 딱지 등)과의 접촉을 피해야 한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엠폭스 감염 예방수칙 및 행동 요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개인 위생 수칙을 적극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심을 가지고 예방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은빛복지관 개관... 고창을계 고령자복지주택 1층

고창군이 28일 고창을계 고령자복지주택 입주세대의 건강하게 여가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주택 1층 '고창군 은빛복지관' 개관식을 열었다.

이날 개관식 행사에는 고창군, LH 전북지역본부, 선운사복지재단, 대한노인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계자 및 입주세대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개관식 이후 복지시설과 입주세대 주거공간을 둘러보고, 경로사당에서 급식봉사가 이어졌다.

고창군 은빛복지관은 경로사당, 프로그램실, 강당, 체력단련실, 노래방 등으로 구성돼 있다. 선운사복지재단(대표 경우스님)이 위탁운영을 맡는다. 입주세대의 의견을 수렴해 고령자 친화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사회복지시설과 결합된 고창을계 고령자복지주택은 2019년 고창군-LH 간 협약을 시작, 사업비 약 200억원으로 128세대를 작년 11월에 완공 이후 1층 사회복지시설을 리모델링해 지난 28일 고창군 은빛복지관이 개관하였다.

대한불교조계종 선운사 복지재단 대표이사 경우스님은 "고창군 은빛복지관은 노인복지향상에 매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선운사 복지재단은 고창 주민들이 더 많은 복지혜택을 누리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무주택 어르신들의 주거안정과 건강한 여가생활 지원까지 입주세대를 위한 맞춤형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전동보장구 충전소 추가 설치... 총 16곳

정읍시가 이동약자를 위한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를 추가 설치하며 지역 내 이동 편의를 크게 강화했다.

이번 설치에 따라 지역 내 급속충전기 수는 총 16개소로 늘어나 전동보장구 이용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시는 지난 4월, 7개소에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를 설치한 데 이어, 수요가 많은 동지역 등 9개소(장명동 시가지, 초산동 연지동 농소동, 상교동 장애인종합복지관, 곰두리스포츠센터, 샘고을시장 평화주차장)에 추가 설치를 완료했다. 이를 통해 배터리 방전 등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해 이동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해 나갈 계획이다.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는 전동보장구를 사용하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최대 2대의 기기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배터리 잔량에 따라 90분 이내에 완충이 가능해 신속한 충전이 가능하며, 추가적으로 바퀴에 공기주입도 할 수 있고, 배터리 충전 중 휴대전화 충전도 동시에 할 수 있는 편리함을 제공

한다.

시는 이에 더해 전동보장구 제3차 배상책임보험 보장 확대, 장애인 및 노인, 임산부 등의 이동편의를 위한 경사로 지원사업,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희수 시장은 "노인과 장애인들이 걱정 없이 이동할 수 있는 복지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샘고을정다운상권, 오샘보쌈 캐릭터 상품 개발

정읍시는 정읍샘고을정다운상권 상권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의 특색과 맛을 담은 경쟁력 있는 대표 상품 개발에 착수했다.



이번에 개발된 시그니처 상품은 지난해 개발된 오샘보쌈 캐릭터를 활용한 빵과 정읍의 특색을 반영한 샌드wich로 구성된다.

시는 상품의 객관적인 평가를 받기 위해 지난 28일에는 시청에서, 24일에는 그래피티 페스타 현장에서 시식회를 개최했다.

이날 시식회에서는 다양한 재료를 사용한 빵과 샌드 5종을 선보였다. 참여자들은 설문조사에 참여해 선호하는 맛과 상품 이름을 선택했다.

시는 시식회에서 수집된 의견을 바탕으로 상품을 더욱 개선해 오는 10월

구절초 꽃축제를 통해 새로운 시그니처 상품을 널리 홍보할 계획이다.

이희수 시장은 "정읍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지역 특색을 담은 간식 상품을 제공함으로써 맛과 재미를 동시에 선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읍을 대표하는 관광 아이템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상품 개발에 힘쓰겠다"고 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운곡람사르습지서 9월 토요일 등 즐길거리 풍성

고창군 운곡람사르습지는 9월 반딧불이 생태여행을 시작으로 토요일, 습지노르드워킹 등 탐방객들을 위한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한다.

반딧불이 관찰 해설, 반딧불이 공예 등 흥미로운 체험과 함께 반딧불이를 위해 지켜야 할 약속을 공유하며 습지 보전의 중요성을 일러는 뜻깊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반딧불이 생태여행은 다년간 운곡습지 최고 인기 프로그램으로 9월 9~15일(7일간) 운영된다. 반딧불이의 서식지 보호와 신관 활동 방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일 30명 선착순 모집 중이며, 7일간 200여명으로 참가 인원을 제한한다. 참가비는 무료이다.

이외에도 운곡습지에서는 9월부터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해 친환경 농산물과 땅콩, 떡, 식혜 등 수제 간식, 공예품 등을 판매하는 '오베이플 토요일'과 '습지 노르드워킹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